

광주, 전국체전 숙소 확보 '비상'

오는 10월8일에 광주에서 열릴 '제 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단 숙박업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15개 시·도와 해외에서 온 3만여명의 선수단이 체전(10월8~14일)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숙박업소들이 ▲장기 투숙객에 따른 부족 ▲관장 숙박요금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객실 제공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체전에 대비해 확보한 객실은 ▲동구 1천850개 ▲3천110개 ▲남구 1천245개 ▲북구 3천180개 ▲1천596개 모두 7천 801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3인 1실 사용시엔 2만3천403명 ▲2인 1실 이용시엔 1만5천602명만이 투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천199객실~7천199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체전 참가자의 21.9%인 6천597명~48%인 1만4천398명이 잠잘 곳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치평동 B모텔, 북구 중흥동 P모텔 등 30여 곳의 대형 숙박업소의 경우 일용근로자 등 장기 투숙객과 단골 손님이 많아 애초 계약한 객실 수만큼 선수단에 제공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10월 8~14일 선수단 3만여명 참가 객실 부족해 1만 4천여명 잘 곳 없어 낮시간 '대실' 영업...숙박업소 비협조

이들 숙박업소는 체전기간 중 선수단을 유치할 경우 4~6시간 정도만 이용하는 '대실'(貸室·비용 1만5천~2만원)손님 등을 받지 못해 영업손실이 크며 '사전 계약서' 작성을 아예 거부했다. 숙박업소들은 숙박요금과 관련해서도 광주시가 '3인실 3만원'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2인실 3만~6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이에 따라 구청 직원들을 1대1로 만나 설득하고 있으나, 일부에선 마찰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중흥동 E모텔 관계자는 "32개 객실을 모두 체전 선수단을 위해 내놓기로 계약했다"면서도 "하루 평균 45만원의 매출은 올려야 하는데, 예상대로 객실이 차지 않을 경우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와 함께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체전 전까지 차질없이 객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숙박업소는 ▲동구 244곳 ▲서구 194곳 ▲남구 90곳 ▲북구 300곳 ▲광산구 106곳 등 모두 934곳에 이른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박승태 광주노동청장 지난달 돌연 사직

광주지방노동청 박승태(55)청장이 지난달 사직할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8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박청장이 지난 6월18일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뒤, 지난 10일부터 서울시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그동안 국무총리 양행감찰반의 조사와 관련한 소문이 나돌아 거취 문제를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후임 광주 청장 인선을 위해 지난달 20일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면접 등을 거쳐 이달말께 최종 임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박 전청장의 떠남 수수설은 사실 무근이며,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 이렇게 씻어요”

광주시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송암동 '까리따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손씻기'를 가르치고 있다. 남구 보건소는 11월까지 5개 유치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체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학생부 반영 높여 공교육 정상화”

김신일부총리, 전남도교육청서 강연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8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3개 정부에 걸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신 반영비율 축소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점차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일뿐이다”고 말했다.

또 김부총리는 “이같은 문제는 참여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고등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고 결국 정상화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체·음·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교사 30여명은 이날 체육·음악·미술 내신제의 철폐,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등을 촉구하며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요구, 이를 막는 공무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도지의 중심특별을 우리는 3,813 회배관할
8899년 443명 2명 2명 2명
수원신도시 1000여
문의전화 082)367-9000

‘용두사미’

광주 세하지구 개발 정보 유출 사건 수사 유출규명 아닌 투기수사로 전환 ‘흐지부지’

광주시 서구 '세하택지지구' 개발정보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개월이 다되어가도록 '몸통'을 파헤치지 못해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18일 "광주지역 한 자동차판매회사 대표 B씨 등 2명이 전남의 한 제 2금융기관 관계자와 짜고 거액을 불법 대출받아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남의 A은행에서 80억여 원을 대출받아 세하지구의 땅 5만7천㎡를 공시지가(5만~7만원)보다 8배 높은 가격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 금융기관과 결탁해 부정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자료를 구하는 등 대출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 측은 이에 대해 "PF(Project Financing)자금은

대출에 필요한 담보능력 평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개발계획 도면을 임의 파기한 혐의(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당초 관심을 끌었던 개발도면 유출자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담보 상태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투기와 개발계획 철회 등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세하지구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구 세하동과 벽진동, 매월동 일대 세하지구 78만㎡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전 정보유출에 따른 투기바람으로 울 초 계획을 철회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분신 막다 경찰 2명 중화상

17일 밤 광주 계림동

50대 남자의 분신 자살을 제지하던 경찰 2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지난 17일 오후 8시42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U여관 앞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던 민모(50·숙박업·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를 말리던 광주 동부경찰서 산수지구대 소속 채모(45)·김모(41)경사가 얼굴과 가슴에 각각 3도와 2도 화상을 입었다.

민씨는 온 몸에 중화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채 경사 등은 화상 전문 병원의 서울 B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채 경사 등은 이날 휘발유가 든 1.5ℓ PET병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갑자기 민씨가 휘발유를 온 몸에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자 이를 말

리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민씨가 U여관에 장기 투숙중인 김모(40)씨와 싸움을 벌인 뒤 이를 따지러 갔다가 여관 주인이 출입을 막자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웠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먹다 남은 음식 제공한

어린이집원장 손해책임

서울고법 민사17부(광종훈 부장판사)는 18일 먹다남은 김밥 등으로 아침죽을 끓여 원아들에게 주었던 서울 K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원아 및 학부모 22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아들에게 50만원씩, 학부모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나원침 (7265) 김종두

유명한 한의원 김종두의 권유

나원침은 양한방의 정수를 담은 한방치료법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수 엑스포 앞두고... 한방이 하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다들 물어봐! 신협에서 KCC

DS건설(주) KCC-원도, 원도, 원도, 원도

KCC정보, 시스템정보 생산·시공

▶ 02-020-1114-1102 ▶ 02-020-1114-1103

(주)본드나리 KCC-원도, 원도, 원도, 원도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프

▶ 02-020-1114-1102 ▶ 02-020-1114-1103

경찰이 "마음에 든다" 여성 지갑 훔쳐

○...술에 취한 해양경찰 순경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받기 위해 여성의 지갑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목포경찰에 따르면 18일 새벽 5시50분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소속 송모(26) 순경이 만취 상태에서 목포시 신흥동 S여관 앞을 지나던 이모(여·23)씨에게 접근, "애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팔을 꺾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송 순경은 1km정도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지갑을 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씨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얻기 위해 지갑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써 한번만 말씀드립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문의전화 1588-8499 080-222-0100